

인문학연구원 제2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외 연구자 참여, 「신자유주의 시대 가족」 활발한 논의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12월 5일(금) 오전 11시 50분~오후 18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족과 커뮤니티」란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Elsa Dorlin(파리8대학 정치학과) 교수의 Keynote speech를 필두로 류도향(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권보드래(고려대 국문과), 서동진(계원예대 융합예술학과), Adam Braun(Lutheran Theological Seminary), 김청우(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소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6분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는 가족관계 내부와 주변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가족 및 커뮤니티의 형태들을 설명하고, 탐구하며, 연구하는 자리로 가족과 커뮤니티의 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적 가능성을 포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가속

화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가족이란 과연 어떻게 호명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논의하는 장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었다.

정미라 교수(인문학연구원장)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가족과 커뮤니티의 삶을 둘러싼 물질적, 관계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재정의하고 재설정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담론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탐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인문학연구원 「가족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제2회 국가전략포럼 개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12월 8일(화) 14시~16시 30분까지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활용하여 「가족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제2회 국가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추주희(인문학연구원) HK교수의 사회로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운영위원이 「가족 실천 및 가족상황 실태 분석」을 발표하였고, 강의혁·김청우·류도향(인문학연구원) 교수가 「가족인문지표의 구성과 방향」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조선경(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용돌봄과장), 김영정(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임옥희(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진방(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김주은(기본소득창조'년 네트

워크 활동가) 등 5분의 토론자를 초청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인문학연구원과 가족구성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25~55세 3,000명을 패널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여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한국 사회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 실천의 양상에 있어 가족구성권 내 동등한 가족실천 참여와 민주적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동반자 등록법을 고민할 때 어떤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원하는 이들을 가족관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미라 원장은 “제2회 국가전략포럼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 변화의 상을 통계를 통해 변화와 욕구의 지점을 포착하여 반영된 정책으로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인문학연구원·광산구청 공동 주최 금남 최부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공동으로 「호남의 유교공동체 전통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2020년 금남 최부 학술대회를 11월 20일(금) 전남대학교 Gn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1세션에서는 박종용(서울교대) 교수가 「최부의 절의정신과 도학사상에서의 위상」, 김병인(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고려 말 '절의' 관념의 등장과 두문동72현」 주제로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김경호(전남대 호남학과) 교수가 「유희준의 가족서사와 도학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한의승(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나덕현의 『북행일기』 연구」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종합토론은 고영진(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와의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족커뮤니티사업단 13, 14, 15차 콜로키움

동서양·시공간 넘나드는 주제로 가족 담론 활발한 논의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 사업단의 제13~15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Zoom 화상회의로 접속 링크를 제공해 진행되었다. 13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김청우(HK 연구교수)의 사회로, 최성만 이화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를 모시고 「벤야민의 사유에서 '가족' 모티프」란 주제로 발터 벤야민의 사유에서 나타난 유년시절과 가족의 모티프를 정리해 보고 미메시스와 유사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 교수는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은 전통적인 혈연공동체가 중심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Lebensgemeinschaft)로 분화되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고,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도 생활동반자(Lebenspartnerschaft)의 관계로 확장, 변형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의 법과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과거의 가부장적 혈연공동체의 형태로서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로부터 여러 갈등과 불행이 생겨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문화와 소외, 전통적 질서와 가치의 해체를 목도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유교적·가부장적·보수적·여성차별적인 형태의 가족의 부활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근대 이후 쟁취해온 민주주의, 공화주의, 합리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다른 한편 그 과정에서 밀려나고 소홀히 되어온 전통, 가족, 민족, 윤리의 문제를 균형 있게 성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14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장복동(HK 연구교수)의 사회로, 박주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를 모시고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Looking for

another family」란 주제로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아시아 동시대미술에 나타난 가족의 새로운 형태와 정의를 살펴보고, 사회적 연대로서 가족의 의미와 유동적인 공감의 장으로서 또 다른 가족의 상을 함께 그려보았다. 박주원 학예사는 발표에서 키워드로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forces)', '개인의 가치(The value of individuals)'를 제시하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What's next?)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가족은 누구이며 어떤 의미인지? 가족의 모양은 어떠한가? 등을 설명하였다.

그럴 경우 가족은 '연대', '사랑', '지원'의 한 축과 함께 '규범', '계약', '책임'이 공존하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한 개인과 가족에게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족의 의미이며, 이중적 성격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하였다.

박 학예사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마련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 및 워크숍 활동 사진을 통해 2020 아시아 기획전의 역동적 활동상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15차 콜로키움은 전북대 황갑연(철학과) 교수를 모시고 「삼강과 정절의 비윤리성」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황 교수는 “중국과 한국에서 삼강은 유가의 핵심이념으로 정립되어 현대 한국 군사정부까지 그 역할이 지속되었다. 삼강 이념의 연원과 변천과정 그리고 비윤리성을 분석 해부하고자 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원 학술 동정

논문게재

- ▶ **강의혁**, 「재난시대의 인문학을 생각하며」, 『안과밖』 49호, 영미문학연구회, 2020.11.15.
- ▶ **강의혁**, 「커뮤니티와 면역성: 폭력에 대한 사유」, 『미국학논집』 52권 3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20.12.31.
- ▶ **김은영**, 「공동체의 기억과 내러티브 만들기- 북아일랜드 블러디 선데이를 중심으로」, 『한국 예이츠 저널』 63호, 한국예이츠학회, 2020.12.31.
- ▶ **류도향**, 「혈연공동체에서 공동체로 - 가족의 재전유」, 『인문학연구』 121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12.31.
- ▶ **류도향**,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종언과

동고의 공동」, 철학논총 103집, 새한철학회, 2021. 1.31

- ▶ **류도향, 강의혁, 김청우**, 「가족과 커뮤니티에 대한 인문지표 제언」, 철학논총 103집, 철학사상문화 35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2021. 1.31
- ▶ **박미선**, 「濯纓 金駟孫의 伸冤과 追尊」, 탁영 김일손의 신원과 추존, 『국학연구논총』 26집, 태민국학연구원, 2020.12.31.
- ▶ **방호범**, 「中国新生代农民工婚姻问题探析」, 『中国教工』 7권 2호, 社会科学出版社, 2020.12.31.
- ▶ **신해진**, 「<정을선전>의 갈등구조에 은폐된 혼숙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69집, 우리어문학회, 2021.01.31.
- ▶ **오영은**, 「부부간 양육분담과 가사분담 지각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와 홀벌이 부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1권 4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20.11.30.

- ▶ **한의승**,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가족 서사의 관계」, 『민족문학사연구』 74호, 민족문학사학회, 2020.12.31.
- ▶ **한의승**, 「羅德憲의 『北行日記』 연구」, 『호남학』 68호, 호남학연구원, 2020.12.31.
- ▶ **한의승**, 「조선후기 문집에 나타난 『금오신화』와 『기재기이』의 흔적」, 『고소설연구』 50집, 한국고소설학회, 2020.12.31.

편저서

- ▶ **신해진**, 『경관방각본 현수문전』, 보고서, 2021.01.21.